주요 내용

▌2단계 금융 구조조정 방안의 평가 ▐

□ **2단계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**

- 금융안정화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부실기업 정리와 제2금융권의 부실 해소를 먼저 추진함으로써 부실 확산을 해소하고, 소프트웨어 개혁도 추진
- **(배경)** 국제 유가 급등, 반도체가 하락세 등 외부 여건의 악화에 따른 금융위기감 고조에 따라,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신속 처리가 절실해짐
- **(특징)** 1단계와 비교해볼 때, 정부주도와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은 유사한 반면, IMF 체제가 아닌 정부 자율의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함
- **(영향)** 제2금융권의 부실 정리가 주대상이므로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여건은 당분간 계속 어려울 전망

□ **평가와 문제점**

- **(기대 효과)** 경제 여건의 악화 추세와 함께 심각해진 금융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타당하며, 시가평가제의 정착을 위한 제2금융권 부실 청산은 바람직
- **(예상 문제점)** 부실 기업의 판정 기준 설정이 全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감안할 때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,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자칫 수량-외형적 목표에 치중할 우려가 있고, 은행대출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아진 반면 은행의 기업금융중개기능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

□ **2단계 금융 구조조정의 성공 조건**

- 구조조정의 비용 최소화·성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 플랜의 작성을 통해 기업 및 금융권의 선진화 작업까지 단계별 추진 일정이 작성되어야 할 것임
  - ·연계콜 등에 대한 분쟁의 신속 마무리하여 부실기업의 적정가격 매각 원활화
- 증권시장의 약세 지속 가능성이 높아 은행권의 구조재편 추진에 따른 일시적인 기업금융 경색의 완화가 필요
  - ·증권-투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제도적 정착 논의의 마무리 필요

현안 분석

2단계 금융 구조조정 방안의 평가

주요 내용과 특징

- 주요 내용
  - 금융 안정화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하드웨어 측면의 구조조정을 신속 추진
  - 부실 기업 정리와 제2금융권의 부실 해소를 먼저 추진함으로써 부실 기업·제2금융권 부실이 은행으로까지 확산되는 전염 위험(contagion risk)을 방지
  -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경영혁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등 소프트웨어 개혁 추진
  - 정부는 은행의 고정(3개월이상 연체)이하 여신감축 계획을 종합 점검한 후 배드뱅크,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V) 등을 통해 부실채권비율을 연말 8%내외, 2001년말 4%이하, 2002년말 선진국 은행수준인 3%이하로 감축 예정

< 2단계 금융 구조조정 내용 >

월별		추진 내용
은행권		- 은행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6개 공적 자금 투입 은행에 대한 개선계획 평가(9-10월) - 年內 2개 정도의 대형 선도은행을 설립
제2금융권		-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화, M&A 및 P&A 방식 등을 통해 제2금융권의 부실 조기 정리
	증권-투신사	- 투신 재무건전성기준 검토 및 한투·대투 정상화계획 이행약정(9월) - 증권 구조조정 추진(10월) - 투신 내부통제장치 검검(11월)
	보험사	- 지급여력 100% 미달(6월)인 10개 보험사(생보 8개사, 손보 2개사)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, 적기시정조치 여부 결정(9-10월) - 삼신생명 경영정상화계획(11월) - 대한생명 1.5조원의 공적 자금 투입후 국내외 매각 추진(12월)
	기타	- BIS 8%미달인 3개 부실 종금사에 대해 자산·부채 실사후 공적 자금 투입후 예금보험공사의 子會社로 전환(10월중) - 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지원 확정(10월) - 금고 적기시정조치 완료, 리스 5개사의 구조조정 완료(12월)

자료: 금융감독위원회

- **배경**
  - 최근 들어 국제 원유가의 상승세 지속 및 반도체값 약세 등이 나타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, 대우차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존 금융경색 현상이 공황 심리로 급속히 심화됨에 따라 구조조정의 신속 처리가 절실해짐
  - 작년 하반기 대우그룹의 부도이후 금융 부실이 투신권·보증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금융권의 금융중개기능이 마비 상태로 악화되어 옴

- **주요 특징**
  - 경기 하강과 함께 금융불안의 위협이 적지 않은 상태이므로 2단계 구조조정은 40조 원의 추가 공적 자금 조성을 전제로 하여 신뢰성과 리더십을 더욱 필요함

< 1-2단계 금융 구조조정의 특징 비교 >

	2단계 구조조정	1단계 구조조정
차이점	- 정부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- 제2금융권의 부실 정리가 핵심 사항임에 따라 기업 대출시장이 중요해짐 - 추가 공적 자금의 조성에는 다소 힘든 과정이 있을 우려 존재 - 최근 국내외 경기 하강 기미	- IMF 체제하의 구조조정 - 은행권·종금사를 중심으로 한 부실 정리에 따라 기업의 증권 발행이 촉발됨 - 공적 자금 조성의 국회 신속 통과 - 1단계의 구조조정기를 전후하여 빠른 경기 회복세 시현
공통점	-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추진 - 은행권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	

평가와 문제점

- **기대 효과**
  - '신속-충분-투명'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공적 자금의 추가 조성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일 것임
  - 더욱이 시가평가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대우관련 부채의 청산이 절실해졌으며, 대우차의 적정 가격 매각을 위해서도 부실 정리가 선결되어야 함
  - 이에 따라, 하드웨어 측면의 부실 기업 및 금융권의 부실 자산에 대한 신속한 처리는 현실적 타당성이 분명함에 따라, 부실 정리 작업이 금융 위기의 우려감을 해

소하는 데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할 것이 기대됨

- **예상되는 문제점**
  - 부실 기업의 판정 기준이나 퇴출 기업의 결정 등이 全 금융권에 걸친 부실화 영향과 맞물려 있어 평가기준의 타당성과 합리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
  - 또한, 은행이 부실 기업의 판정과 조기 청산에 있어서도 은행이 적극 대처하도록 유도할 동기 부여가 아직 불투명한 실정임
  - 기업 및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혁은 경제·사회적인 인프라를 포함한 시스템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야 달성 가능하므로, 단기간내의 개혁 목표는 그만큼 수량적이고 외형적인 측면에 치중하게 될 여지가 있음
  - 기업금융 시스템이 과거의 '높은 차입비율-높은 성장을 통한 수익 확보' 패턴에서 '높은 자기자본-높은 주주가치' 패턴으로 변하면서 은행 중심에서 증권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기까지 신용경색 현상이 반복될 개연성이 여전히 높음

2단계 구조조정의 성공 조건

- **비용 최소화-성과 극대화를 위한 실현성 있는 추진 스케쥴의 작성**
  - 신속하고 충분한 구조조정은 대규모 공적 자금의 추가 조성이 전제될 수 밖에 없으나, 비용 최소화-성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 플랜의 작성을 통해 기업 및 금융권의 선진화 작업까지 단계별 추진 일정이 작성되어야 할 것임
  - 연계콜 등에 대한 분쟁의 신속 마무리하여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증가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부실 기업의 최종 매각 등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

- **구조조정이후의 기업금융 원활화 과제도 보완 필요**
  - 증권시장의 약세화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서 은행차입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으므로, 은행권의 구조재편 추진에 따른 일시적인 신용경색의 완화가 필요
  - 증권-투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제도적 정착 논의가 마무리될 필요가 있으며, 종금업의 사실상 퇴장에 따라 기업금융 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 차원의 보완이 바람직함

(임진국 연구위원 jklim@hri.co.kr ☎ 3669-4026)